

류현진 처럼 던지고, 추신수 처럼 쳐라... 사회인야구 '가을 축제'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잔치' 제 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오는 9월1일 시작된다. 끈끈한 팀워크로 무장한 48개팀의 열전은 늦가을까지 계속된다. 사진은 지난 대회 경기 모습.

광주일보 주최 제3회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내달 1일 개막... 무등경기장 등서 48개팀 "플레이볼"

천왕·지왕·인왕·호남 리그별

11월 17일까지 토너먼트 방식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열정이 가을 그라운드를 달군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3회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오는 9월1일 OB구장 등 4개 구장에서 개막전을 갖고 성대한 막을 올린다.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축제'는 천왕(8팀)·지왕(16팀)·인왕(16팀)·호남(8팀)리그로 나뉘어 진행되며 총 48개 팀이 참가해 우승을 향한 야구 열전을 펼친다.

경기는 무등경기장을 비롯한 OB구장, 동성고, 무등중, 서석초 등지에서 진행된다.

11월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최근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열린 대진 추첨을 통해 이미 맞수들이 결정됐다.

지난 대회 우승팀들도 '디펜딩 챔피언'으로 연패를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가을 천왕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팔도 참오리 선수들은 정관장 플레이보이즈와 대회 첫 경기를 갖는다.

지왕리그의 세한 재규어스에게는 3연패를 위한 무대다. 지왕리그 초대 챔피언인 세한 재규어스는

지난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챔피언 타이틀을 지켰다. 세한 재규어스는 세종 유니스를 상대로 3연패를 위한 시동을 걸게 된다.

인왕리그 지난 대회 챔피언 청연한방병원 은 피닉스와 이번 대회 첫 대결을 갖고 무등기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한다.

전년도 전남리그는 올 시즌 호남리그로 이름이 변경됐다. 호남리그에서는 화순에슬레틱스가 안타처블을 상대로 대회 2연패를 위한 스타트를 끊는다.

각 참가팀은 탄탄한 조직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승부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각 리그의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우승 메달과 함께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우승메달 및 상금 30만원, 3위 팀에게는 메달과 시합구 1타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개인타이틀도 마련됐다. 각 리그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을 부상으로 준다. 우수 선수, 심판상 주인공에게도 트로피와 상금이 돌아간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시 야구협회와 광주시 생활체육회야구협회가 주관하며 광주시 생활체육회·전남도 생활체육회·KIA타이거즈가 후원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대통령배 결승행 좌절

전국고교야구대회

공주고에 3대 6패

광주일고가 대통령배 결승전에서 주저앉았다.

광주일고는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제47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 준결승 경기에서 공주고에 3-6으로 패해 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1회부터 양팀이 1점씩 주고받았다. 광주일고가 2사에서 3번 이호연의 몸에 맞는 볼에 이어 4번 타자 채지선의 3루타로 선취점을 올렸다.

하지만 광주일고 선발 윤중현이 1회말 첫 타자 이국필에게 2루타를 맞은 뒤 주자 견제를 하다가 악송구를 하면서 무사 3루의 위기에 몰렸다.

이어 2번 조병건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3회초 광주일고가 2사2루에서 나온 이호연의 적시타로 균형을 깨지만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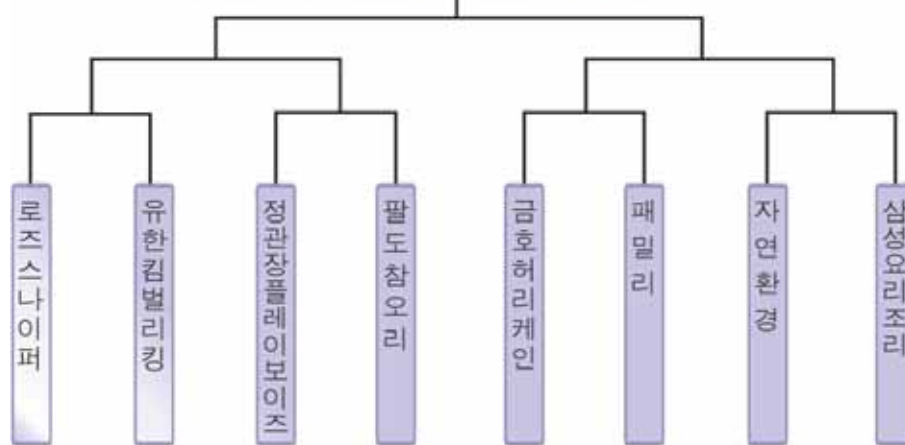
3회말 선발 윤중현이 선두타자 오세일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1사2루에서 연속 안타를 맞으며 2-2에서 일찍 강판됐다.

좌완 한두솔이 마운드를 넘겨받았지만 오홍진의 땅볼 때 내야진들이 더블플레이를 완성시키지 못하면서 광주일고가 역전을 허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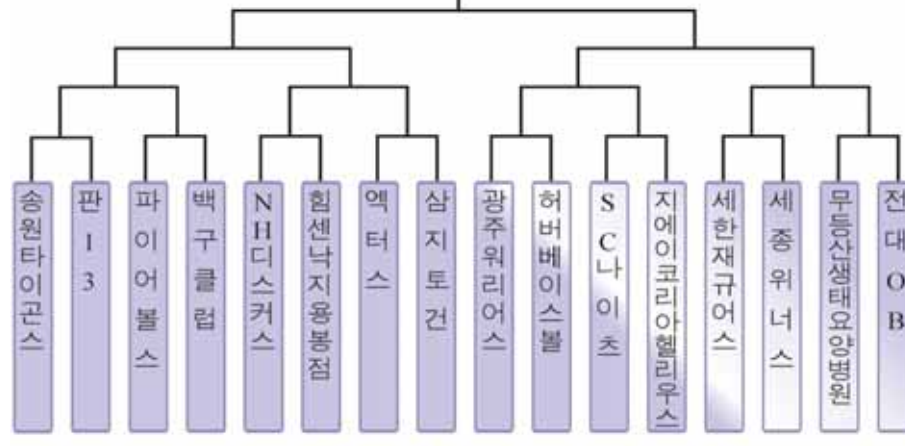
이후 전세를 뒤집는데 실패한 광주일고는 결승 티켓을 공주고에 내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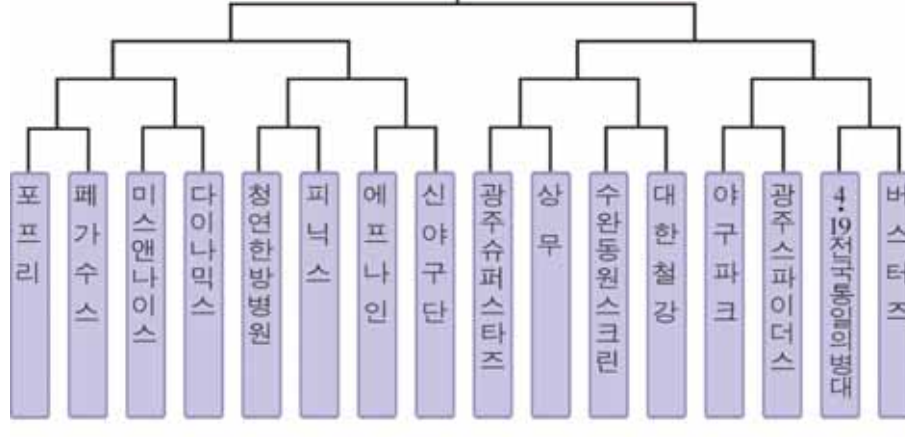
천왕 토너먼트 대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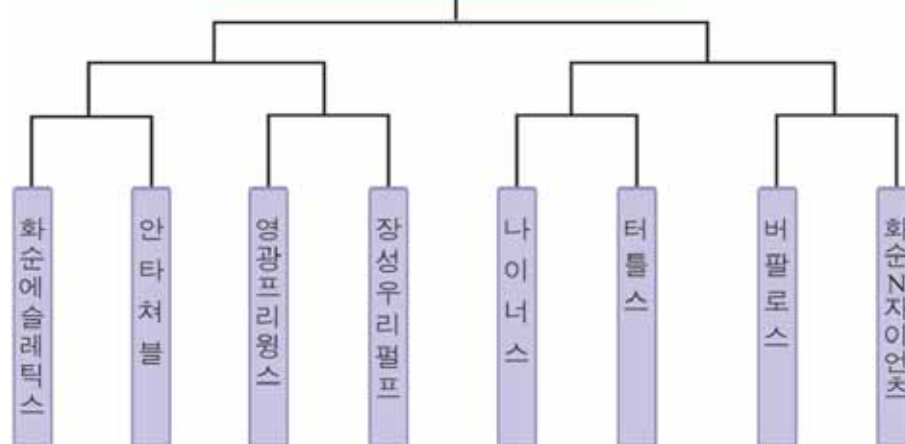
지왕 토너먼트 대진표



인왕 토너먼트 대진표



호남 토너먼트 대진표



류현진, 25일 보스턴 상대 13승 재도전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13승에 재도전한다. 류현진은 25일 오전 5시 5분(이하 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보스턴과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최근 6연승을 달리며 승승장구하던 류현진은 20일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7.1이닝 3실점으로 잘 던지기도 패전의 멍에를 썼다.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 호세 페르난데스와의 맞대결에서 관중패배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13승에 재도전한다. 류현진은 25일 오전 5시 5분(이하 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보스턴과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최근 6연승을 달리며 승승장구하던 류현진은 20일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7.1이닝 3실점으로 잘 던지기도 패전의 멍에를 썼다.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 호세 페르난데스와의 맞대결에서 관중패배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로 강한 모습을 보인 만큼 로스앤젤레스 팬들도 기본 좋게 응원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상대는 만만찮다.

올 시즌 처음 만나는 상대인 보스턴은 21일까지 75승 54패를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 선두를 다투는 강팀이다. 팀 타율이 0.274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0.280)에 이어 2위이고, 팀 득점(649개)·팀 타점(623개)·팀 홈런(0.347) 선두를 달리는 등 화려한 공격력을 자랑한다.

'빅 파피' 데이비드 오타스를 필두로 제이코비 엘스베리, 더스틴 페드로이아, 셰인 빅토리오 등 타격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 즐비하다. 맞대결할 투수는 팀내에서 가장 많은 11승을 올린 베테랑 좌완 존 레스터다. 레스터는 직전에 등판한 20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8.1이닝 무실점의 뛰어난 투구를 선보였다. /연합뉴스

추신수, 16호 홈런...ML 통산 100홈런 '-1'



'추추 트레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메이저리그 통산 100홈런-100도루 기록 달성을 눈앞에 뒀다. 추신수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 1회말 첫 타석에서 선두 타자 홈런을 때렸다.

'추추 트레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메이저리그 통산 100홈런-100도루 기록 달성을 눈앞에 뒀다. 추신수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 1회말 첫 타석에서 선두 타자 홈런을 때렸다.

추신수가 홈런을 때린 것은 이달 4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 이후 18일 만이다.

아울러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통산 99번째 타점을 그려 100홈런에도 한 개 차이로 다가섰다. 통산 도루 역시 99개를 기록 중이라 곧 100-100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시애틀에서 클리블랜드로 이적해 첫 홈런과 도루를 기록한 지 7년여 만에 정복하는 고지다. 2008년 14홈런을 기록한 추신수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3할 타율과 20홈런-20도루를 넘겼다.

이날 추신수는 홈런 포함 5타수 4안타 3타점 3득점의 폭발적인 타격을 자랑하며 팀의 10-7 승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회의 26일 개최

최종 10라운드까지 진행

프로야구를 이끌 새 얼굴이 모습을 드러낸다.

2014 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회의가 오는 26일 오후 2시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열린다.

이번 2차 지명은 지역 연고에 관계없이 이뤄지며 출신 라운드는 지난해 성적 역순(NC-한화-LG-넥센-KIA-롯데-두산-SK-삼성-KT)으로, 좌수라운드는 전년도 성적 순으로 진행된다.

각 구단은 라운드별로 1명씩 지명하며 최종 10라운드까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신생팀 KT는 1라운드가 끝난 뒤 5명의 선수를

특별 지명한다. 프로무대를 노리는 지명 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를 포함해 약 700여 명이다.

이번 지명회의는 SPOTV를 통해 생중계되며, KBO 인터넷 공식 포털 사이트인 NAVER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고지 1차 지명에서 순천 효천고 에이스 차명진을 선발했던 KIA는 '즉시 전력감'을 목표로 2차 지명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탄탄한 기본기와 안정된 전력을 가진 선수영입으로 주전과 백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내부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